

## 충남도, '실국장책임경영(Semi-CEO)제' 평가계획 확정

- 주요업무·도지사공약 등 11개 항목 평가, 오는 12월 결과 공개 -
- 道政을 단순관리단계에서 책임경영단계로 전환하는 계기 조성 -

충청남도가 “성과중심의 새로운 道政운영시스템구축”을 위해 全國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국장 책임경영(Semi-CEO)제’에 대한 평가계획이 민선4기 도정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道政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최종 확정됐다.

실국장 책임경영(Semi-CEO)제는 道知事の 권한인 ‘人事제청권, 조직운영권, 정책집행권’ 등을 실국장에게 위임하여, 실국장 스스로 소관업무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 추진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동안 ‘실국장 워크숍 개최(2회), 실국주무 및 평가업무 담당토론(3회), 혁신분권연구단 등 전문가 자문(4회)’을 받아 실국의 기능 차이에 따른 평가의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평가대상은 年初 기자회견을 통하여 道民에게 약속한 책임경영제 업무(69개)중심에서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현안사항관리, 혁신활동, 부서간 협조’ 등 道政 全분야로 확대 ‘4개 관점, 11개 항목’으로 조정하여 道政 곳곳의 중요한 부문을 빠짐없이 점검, 道政 성과를 倍加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여 ‘강한 충남’ 건설의 기반을 강화토록 하였다.

평가방법은 사업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정밀진단 개선안을 마련토록 ‘정량·정성평가, 현장 확인, 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다양화 하고 평정방식은 평가업무담당부서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평가지표를 개발, 11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등급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3등급(A·B·C) 설정하였다.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외부환경 등에 의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도지사·행정부지사'가 노력도에 대하여 정성평가로 조정점수(가점)를 부여토록 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고

평가단은 道 공무원과 道政에 관심이 많고 평가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30명(記者포함)내외로 구성(단장 : 행정부지사/민간인 공동), 3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11월부터 12월 까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할 계획이며 평가결과 종합순위는 발표하지 않고 11개 항목에 대하여 실국장(10명)의 업무실적을 3등급(A·B·C)으로 오는 12월에 발표, 실국장 人事에 반영하고 관점별 주요성과 및 문제점 등은 별도로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발간 2008년도 道政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Semi-CEO제’ 시행이후 의사결정의 분권화에 따라 3S(Simple, Speed, Slim)행정추진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道政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Semi-CEO제’가 ▲道政을 관리에서 리더십으로 전환 ▲적절한 부담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부문별 책임경영자 양성 ▲道民(고객)만족 중심의 실국별 비전 수립 추진 등 ‘성과중심의 道政운영시스템’으로 정착되어서 韓國의 中心, 강한 忠南 실현의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Semi-CEO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계획을 마련(12개 분야)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사 제도를 적발위주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중앙과 연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실효성 방안 마련과 2008년부터 평가적용 대상을 직속기관장까지 확대검토 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명실공히 ‘지방정부의 행정혁신 성공모델’로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 제27회 금산 인삼축제 열려

- 9월 7일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인삼으로 당신의 건강을 설계하세요' 주제로 -



가 펼쳐졌다.

충청남도과 금산 인삼선양위원장(위원장 박동철)은 7일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에서 최민호부지사, 박동철 금산군수 등 유관기관 단체장, 관광객 및 군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삼으로 당신의 건강을 설계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제27회 금산 인삼축제 개막식을 갖고 16일까지 10일간 다양한 축제행사가

개막식은 대북타고(태고의 울림)와 판굿(어울림 마당)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김호택 금산 인삼축제 집행위원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축제가 시작되었으며, 식후행사로 설운도, 인순이, 이용 등 인기가수 다수가 출연 하는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금산 인삼축제는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인삼을 재배토록 하여준 산신령에게 감사드리고 인삼농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1981년 10월에 처음으로 인삼제를 개최, 인삼 종주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회 연속하여 문화관광부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은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금산 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작년 못지않은 수준으로 준비하였으며, 또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남자를 선발하는 'IFSA세계스트롱맨대회'를 개최하는 등 예년에 비해 국제성 강화는 물론 각종 체험행사도 확대·운영하였다.

이번 축제기간동안 웰빙 시대에 걸맞는 건강체험이벤트를 비롯하여 금산인삼관·주제관·건강체험관으로 이뤄지는 기획관 및 체험공간은 인삼엑스포 수준에 맞춰 새롭게 선보였다.

또한 관광객들의 체류를 위한 야간 이벤트로 난타공연을 비롯하여 인기가수 초청 추억의 7080콘서트,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경연대회, 각종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져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채훈 충남 정무부지사 취임



충남도의 첫 '경제부지사' 인 채훈(56·사진)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취임해 9월 4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공업교육과를 졸업한 채 부지사는 2000년 프랑크푸르트 무역광장 재직시에 독일의 대한민국 투자유치로는 최고액인 16억 달러를, 지난 2004년에는 경영혁신본부장으로서 코트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기업 경영평가 1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채 부지사는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1순위 과제로 꼽으며 “투자유치의 새로운 그물을 짜겠다. 투자유치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내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충남도의 통상과 투자 유치 등 경제 업무를 전담한다.

## 영화배우 정준호씨 백제문화제 홍보대사 위촉

- 백제문화제 홍보활동 가시화 -



충남도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영화배우 정준호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백제문화제 홍보에 나섰다.

백제문화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이완구 도지사는 영화배우 정준호씨에게 위촉패 및 꽃다발을 전달하였고, 축하 인사말을 통해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공주와 부여에서 처음으로 통합 개최하는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준호씨 같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홍보대사로서의 적극적인 백제문화제 참여와 홍보를 당부했다.

## 충청권 경제협의체 출범

- 충청 번영 위한 양보와 상생발전 도모 -



박성호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 지사는 8월 27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충청권경제협의체 구성 협약서에 서명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6월 협의체 구성을 선언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충청권경제협의체는 기업인과 경제단체 중심의 민간 협의체로 다음 달 말경 창립총회를 열고 경제협의회, 실무협의회, 사무국 등 45명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광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동 연구 △광역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별 인적 네트워크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 △대덕특구 선도사업 추진 △해외 사무소 공동 활용 및 해외 수출 마케팅사업 공동 추진 등을 하게 된다.

이들은 현안인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제정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대전 유치와 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조기 건립,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기 해제, 국방대 논산 이전 등도 서로 돕기로 했다.

중부권 원자력의학원의 대전 설립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자체별 1곳 이상 설치, 댐 주변 지원금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에 대해선 세종시의 법적 지위 등이 결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3개 시도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공동 번영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앙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충청권을 홀대할 때에는 대선과 연계해 충청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행정구역을 넘어 충청권이 힘을 합쳐 공통 및 개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보령 '생생꿈마을' 충남도에 기부

- 복지재단 무궁화 '생생꿈마을' 부지 103,720㎡ 등 42억원 상당 -



사회복지재단 무궁화(이사장 전영한)가 지난 2005년도 개원한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을 8월 17일 충남도에 기탁해 화제다.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는 전영한 대표이사가 지난 1993년 소 50두, 부지 103,720㎡, 건물 2,427㎡ 등 사재 42억 원 상당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으로써 당시에는 선뜻 믿기 어려운 거액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재산평가액이 73여억 원에 이른다.

무궁화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없이 법인설립 당시 출연한 기본재산으로 현재 운영중인 생생꿈마을(실비노인요양시설 2,093㎡)을 건립하여 지난 2006. 4. 1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보살펴 오고 있으며, 넓은 부지와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활용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2006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본 시설물의 증축과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한편, 매년 사재 2~3억 원을 투자하여 조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조정재산액만도 32억 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복지시설을 건축, 위탁하는 사례는 있어도, 법인시설을 행정기관에서 기부 받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것이며 복지사업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완구 충남지사, 유럽·UAE 순방 귀국보고회

- 스페인 CEPSA社와 11억불 MOU체결 -
- UAE IPIC社와 22억불 투자유치 상담 -



이완구 충남지사는 민선 4기 출범 후 외자를 60억 달러 유치하겠다고 목표로 내세웠으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15억 달러와 금번 유럽 순방 기간 동안 33억불 상당의 MOU체결과 투자에 합의를 이끌어내 이미 50억 달러 상당의 외자유치에 이르렀다.

7월 19일 오전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스페인, 그리스, 터키 및 UAE 순방활동 기간 동안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순방 귀국보고회를 갖고, 이와 같은 외자유치 활동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충남도는 스페인 제2의 석유그룹인 CEPSA社와 현대오일뱅크 대산단지내 BTX생산라인 증설에 총11억불(외국인직접투자 9.35억불)을 투자키로 까를로스 회장과 MOU를 체결했고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UAE의 국영투자전문회사인 IPIC사 투자담당사장 카뎀 알 쿠바이씨와 단독 회동을 통해 2011년까지 22억불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스페인 CEPSA와의 투자협정 체결은 스페인 기업이 한국 내 첫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투자시기가 앞당겨져 대산지역이 국내 최고의 석유화학단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IPIC사의 투자가 완료되는 2011년에는 최고의 효율성을 보유한 정유사로 중국·동남아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PIC사는 석유화학분야 이외에도 투자에 가치가 있는 분야라면 추가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으며 다른 투자가들도 소개해주겠다는 적극적인 표명으로 충남도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금년 12억불 투자유치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국 우수자본을 겨냥한 중국 투자설명회 개최, 전략산업과 연계한 투자 프로젝트별 지원 가시화, 오픈 티켓제도 운영 등 투자유치목표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번 투자유치단은 이외에도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청을 방문하여 당진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 모색하고, 현대자동차 터키법인 방문하여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터키시장에 대한 수출가능성을 개진하였으며, 두바이 개발 건설현장시찰을 통해 도청이전 신도시·안면도 관광지개발 등 도내 신도시, 관광지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